

#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 나타난 철학적 특징

서근식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철학 전공  
rootsik@hanmail.net

- I. 머리말
- II. 『계몽전의』의 저술의도
- III. 『계몽전의』의 납감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IV. 『계몽전의』에 나타난 상수론
- V. 이황은 상수역학자인가, 의리역학자인가
- VI.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주역학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가 2017년 11월 10일(금)에 공동으로 주최한 “조선중기 중국역학의 토착화 양상 연구: 퇴계와 퇴계학과 역학의 특징 이해”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sup>1)</sup>은 16세기 조선에 조선성리학을 확립시킨 인물로 매우 존중받고 있는 인물이다. 고려 말 원나라로부터 수입된 성리학은 이황과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를 거치면서 조선에 안착할 수 있었으며, 이 두 사람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갔다. 이황은 리(理)를 매우 존중하였으며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과 벌였던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에서도 리(理)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황의 저술들은 현재 『증보 퇴계전서(增補 退溪全書)』(전5책)로 남아 있다. 우리가 살펴볼 『계몽전의(啓蒙傳疑)』는 『증보 퇴계전서』 3책에 담겨져 있고 참고자료로 사용될 『주역석의(周易釋義)』는 5책에 담겨져 있다.<sup>2)</sup> 이 외에도 이황의 『주역』에 대한 해설은 「건괘상구강의(乾卦上九講義)」<sup>3)</sup>와 몇몇 편지글에 담겨져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계몽전의』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가운데 주요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이황의 역학(易學)이 상수역학(象數易學)과 관련된다는 논문<sup>4)</sup>, 의리역학(義理易學)과 관계된다는 논문<sup>5)</sup>,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려는 것이라는 논문<sup>6)</sup>, 기존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려

- 
- 1) 本貫은 眞寶이고 字는 景浩이다. 號는 退溪·退陶·陶叟이고 諡號는 文純이다.
  - 2) 본 논문에서 사용될 『增補 退溪全書』(全5冊)는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1992년에 影印한 것이며, 그 가운데 『啓蒙傳疑』는 3책에 담겨 있고 『周易釋義』는 5책에 담겨 있다. 이 외에도 『韓國經學資料集成』 88(易經 2)에 『周易釋義』와 『啓蒙傳疑』가 함께 들어가 있다. 또 『啓蒙傳疑』는 阿部吉雄 編으로 退溪學研究院에서 1975년 影印한 『日本刻版』李退溪全集』 下에 들어가 있다. 『啓蒙傳疑』와 『周易釋義』는 影印된 關本이지만 面數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增補 退溪全書』에서 임의로 붙인 面數에 따르겠다.
  - 3) 「乾卦上九講義」는 『退溪全書』 卷7 「經筵講義」에 「西銘考證講義」와 함께 들어 있다.
  - 4) 엄연석, 「李滉의 『啓蒙傳疑』와 象數易學」, 『韓國思想과 文化』 第11輯(修德文化社, 2001. 3.); 임병학, 「退溪의 河圖洛書論과 그 性理學的 的의」,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46號(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2010. 2.).
  - 5) 정병석, 「周易에 대한 退溪의 義理的 觀點」, 『退溪學報』 第115輯(退溪學研究院, 2004. 6.).
  - 6) 엄연석, 「퇴계의 역학사상에서 象數와 義理의 가역적 전환문제」,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49輯(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2011. 8.); 서근식, 「退溪 李滉의 『啓蒙傳疑』에 대한 體系的 研究」, 『溫知論叢』 第31輯(溫知學會, 2012. 4.); 엄연석, 「퇴계 역학 문헌의 상수·의리학적 특성과 미래적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第17號(嶺南退溪學研究所,

는 논문 등이 있었다.<sup>7)</sup> 또 이황의 역학을 『주역석의』와 연관 지어서 연구한 논문과<sup>8)</sup>, 퇴계학과(退溪學派)의 역학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sup>9)</sup>, 이황의 역학을 중심으로 한 학위논문도 있었다.<sup>10)</sup>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황의 역학(易學)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계몽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희(朱熹, 1130-1200)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계몽전의』가 『역학계몽』을 해설한 글이지만 서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II장 저술의도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또 『주역석의』의 의리역학적 부분에 대한 내용은 V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제 『계몽전의』의 저술의도부터 살펴보자.

## II. 『계몽전의』의 저술의도

이황은 57세가 되던 1557년(명종 12)에 『계몽전의』를 완성한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희의 『역학계몽』을 해설한 글이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주희의 『역학계몽』과 이황의 『계몽전의』는 서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계몽전의』 「서문(序文)」에 실려 있는 글을 통해 저술의도를 살펴보자.<sup>11)</sup>

---

2015. 12.).

- 7) 엄연석, 「퇴계 역학사상의 체계와 새로운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第3號(嶺南退溪學研究所, 2008. 12.); 엄연석(2015. 12.), 위의 논문.
- 8) 엄연석(2011. 8.), 앞의 논문; 황병기, 「퇴계 이황의 주역학(周易學)과 『주역석의』(周易釋義)」, 『國學研究』 第25輯(한국국학진흥원, 2014. 12.); 엄연석(2015. 12.), 위의 논문.
- 9) 엄연석, 「退溪學派의 義理易學의 목표와 象數易學」, 『奎章閣』 第26輯(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12.); 이선경, 「퇴계학파의 『역학계몽』 이해」, 『陽明學』 第28號(한국양명학회, 2011. 4.).
- 10) 김익수, 『주자와 퇴계의 역학사상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 최정준, 「退溪의 『啓蒙傳疑』에 관한 研究: 『周易質疑』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김영남, 「주자와 이퇴계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상수의 의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 11) 자세한 『啓蒙傳疑』의 저술의도에 대해서는 서근식(2012. 4.), 앞의 논문의 II장 『啓蒙傳疑』의 體系와 著述意圖를 참고할 것.

(내가) 일찍이 원락자(苑洛子)의 『계몽의견(啓蒙意見)』을 보니 『역학계몽』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고, 또한 근세에 얻기 어려운 책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 그림이 너무 쇠쇄(細碎)하여 별로 발명한 것이 없고, 또 해설이 너무 깊고 이론(異論) 세우기를 좋아하였다. 지금 그 주된 의의를 약간의 조목을 골라 밝혔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그가 한 바를 따를 수가 없었다.<sup>12)</sup>

이 말에 따르면 이황이 『계몽전의』를 저술한 직접적인 이유는 원락자 한방기(苑洛子 韓邦奇, 1479-1556)의 『계몽의견』의 그림이 너무 쇠쇄하여 주된 의의 약간만을 따르고 나머지는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희의 『역학계몽』에 대해서는 한방기 이전에도 황간(黃幹, 1152-1221), 호방평(胡方平, ?-?) 등 많은 주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들 가운데 한방기가 저술한 『계몽의견』을 보니 해설한 부분이 너무 쇠쇄했기 때문에 이황은 이에 만족할 수 없어서 『계몽전의』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황이 『계몽전의』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계몽의견』의 견해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주희가 어떤 목적으로 『역학계몽』을 저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주희는 『역학계몽』 「서문」에서 먼저 『주역』을 해석하는 것에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의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sup>13)</sup>

이로 인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전부터 들어온 것들을 모아 4편의 책<sup>14)</sup>으로 펴내 학문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두 학과(상수학과와 의리학과의) 학설에서 의혹됨이 없고자 한다.<sup>15)</sup>

주희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동안 왕필(王弼, 226-249)과 정이(程頤, 1033-1107)로 대표되던 의리역학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동시에 주장함으로써 상수역학도 이해해야만 『주역』을 올바

12) 『啓蒙傳疑』 「序」 209쪽 上左. “抑嘗觀苑洛子意見書 可謂有功於啓蒙 亦近世難得之書也. 但爲圖太碎而無甚發明 爲說太深而好異議. 今擇其要義若干條著之 餘不敢效其所爲.”

13) 서근식, 「朱子 『易學啓蒙』의 體系的 理解」 『東洋古典研究』 第43輯(東洋古典學會, 2011. 6.), 239-240쪽 참조.

14) 『易學啓蒙』에 실린 「本圖書」, 「原卦畫」, 「明蓍策」, 「考變占」의 4편을 말한다. 이 부분은 『啓蒙傳疑』에서도 같은 차례로 이루어졌다.

15) 『易學啓蒙』(『朱子全書』 1, 上海古籍出版社, 2002) 「序」 978쪽. “因與同志頗輯舊聞 爲書四篇以示初學 使毋疑於其說云.”

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황은 주희의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계몽전의』를 저술하였다. 그렇지만 주희의 『역학계몽』과 이황의 『계몽전의』는 서술체계가 다르고 정이의 의리역학적 책인 『정씨역전(程氏易傳)』<sup>16)</sup>을 지양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역석의』에서 정이의 견해를 따랐으므로 주희의 견해를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또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한대(漢代)의 상수역학 이론들 가운데 괘변설(卦變說)은 받아들이고 그 외의 호체설(互體說), 비복설(飛伏說) 등의 학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17)</sup> 그러나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이러한 학설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주희는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기 위해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주역』을 『역경(易經)』 부분과 『역전(易傳)』 부분으로 나누어 『역경』은 점(占)치는 책(상수적)으로 해석하고 『역전』은 의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이황은 주희가 『역학계몽』 「서문」에서 강조했던 상수와 의리의 통합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황의 『계몽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학계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소옹(邵雍, 1011-1077)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한 부분은 이황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하도(河圖)」를 10의 수로 보고 「낙서(洛書)」를 9의 수로 본 점이다. 당시에는 목지 유목(牧之劉牧, 1011-1064)이 『역수구은도(易數鉤隱圖)』에서 「하도」는 9의 수로, 「낙서」는 10의 수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소옹의 「하도」는 10의 수이고 「낙서」는 9의 수라고 말했다고 소개하자 이것이 『역수구은도』의 견해를 물리치고 오늘날까지도 정설(定說)처럼 되었다.<sup>18)</sup> 이황의 『계몽전의』에서도

16) 본래 이름은 『易傳』이지만 『周易』의 『易傳』과 구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程氏易傳』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7) 여기서 互體說은 『朱子語類』(『朱子全書』 16, 上海古籍出版社, 2002)에서 “朱子發用互體”(卷67 「易三」 〈卦體卦變〉 2238쪽)라고 하였고, 또 같은 곳에서 “易中互體之說 共父以爲 雜物撰德辨是與非則非其中爻不備 此是說互體. 先生曰 今人言互體者 皆以此爲說. 但亦有取不得處也 如頤卦大過之類是也”라고 한 것을 보면 朱熹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易學啓蒙』에서는 互體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18) 『易學啓蒙』을 보면 邵雍이 「河圖」의 수가 10이고 「洛書」의 수가 9라고 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朱熹가 「河圖」는 10, 「洛書」는 9라고 하는 說을 邵雍이 말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邵雍의 다른 저작인 『皇極經世書』와 『伊川擊壤集』에서도 「河圖」 10, 「洛書」 9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은 朱熹가 邵雍을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황은 『역학계몽』의 기본적인 부분은 주희의 견해를 따르고 있고 서술방식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주희는 한대 상수역학 가운데 괘변설만 수용했고 이황은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 Ⅲ. 『계몽전의』의 납갑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황은 『계몽전의』를 주석하면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인 납갑법(納甲法)<sup>19)</sup>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주희가 『역학계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납갑법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 『계몽전의』 4편의 글 이외에 「필담논납갑(筆談論納甲)」이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넣기까지 하였다. 주희가 납갑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주희는 소옹의 「하도」와 「낙서」의 설을 긍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론의 끌어들이고 있지 납갑법과 같은 한대 상수역학은 지양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희가 『역학계몽』과 『주역본의』에서 전개한 이론을 도서상수역학(圖書象數易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황은 반드시 주희의 이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고,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이라도 그것이 『역학계몽』의 견해를 설명해낼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도서상수역학을 주장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이유는 주희가 소옹을 이정자(二程子)처럼 존중한 것은 아니지만<sup>20)</sup> 소옹의 가일배법(加一倍法)을 받아들여 『주역』

빌려 말한 것으로 보인다.

19) 納甲은 八宮卦에 十干을 배분하고 각 爻에 또 十二支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甲은 十干의 첫째이므로 納甲이라고 일컫는다. 十二地를 배분한 것은 納支라고 일컫는다. 天·地와 乾·坤의 형상을 나누어 甲·乙·壬·癸를 덧붙인다. 震·巽의 형상에 庚·辛을 덧붙이고, 坎·離의 형상에 戊·己를 덧붙이고, 艮·兌의 형상에 丙·丁을 덧붙인다. 八卦는 陰陽으로 나뉘고, 각 卦 6爻의 자리는 五行으로 배분되니, 밝은 빛이 두루 통하고 변화무쌍한 『周易』에 節氣가 서게 된다. 이 설은 乾·坤卦의 卦象을 內卦와 外卦로 나누어 乾卦의 內卦에 甲을 納入하고 外卦에 壬을 納入한다. 坤卦의 內卦에 乙을 納入하고 外卦에 癸를 納入한다.

20) 이 부분은 呂祖謙(1137-1181)과 공동으로 편찬한 『近思錄』에서 周敦頤(1017-1073), 張載(1020-1077), 程顥(1032-1085), 程頤의 글은 상당히 많이 인용하지만 邵雍의 글은 몇 구절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의 획괘(畫卦)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소옹의 「하도」와 「낙서」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왕필의 득의망상론(得意忘象論)으로 일소(一掃)되었던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sup>21)</sup>와 다른 한대 서적들도 거리낌 없이 인용하고 있다. 주희도 『주역참동계』를 주석한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주역참동계』가 납갑설과 관련된다는 것은 이미 주희가 『주역참동계고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주역참동계』는 본래 『주역』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납갑법을 빌려 진퇴의 징후를 행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다른 때에 매번 배우고자 해도 그 전한 바를 얻지 못해 손뼉 곳이 없어 감히 가볍게 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납갑법을 말한 것은 경방(京房, B.C. 77~B.C. 37)의 점법(占法)을 전한 것이요 『화주림(火珠林)』<sup>22)</sup>에서 보인 것은 남겨진 설이다.<sup>23)</sup>

주희는 인용문에서 납갑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역참동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을 『역학계몽』이나 『주역본의』에까지 인용하여 해석하지 않았다. 즉, 주희는 『역학계몽』이나 『주역본의』에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 가운데 괘변설(卦變說)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황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황이 이렇게 주희와 다른 해설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황은 이미 1559년부터 1566년까지 벌였던 사단칠정논쟁을 통해 주자학에서 리(理)는 정의(情意)·계탁(計度)·조작(造作)이 없다는 것에 대해 리(理)의 능동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1559년에 기대승의 견해에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리(理)의 능동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sup>24)</sup> 이와 같이 성리학에서 주희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이황이 굳이 『계몽전의』라는 책에서만 주희의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

21) 『周易參同契』는 後漢의 魏伯陽(?-?)이 우주의 원칙에 순응하여 丹을 연마하고 延命長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周易』의 원리로 풀이한 책이다.

22) 『火珠林』은 唐末宋初의 道士 麻衣道者(?-?)가 지은 占術에 관한 기본적 이론서이다.

23) 『周易參同契考異』(『朱子全書』 13, 上海古籍出版社, 2002) 「序」〈附錄〉 530쪽. “朱子曰 參同契本不爲明易 姑借此納甲之法以寓其行持進退之候. 異時每欲學之 而不得其傳 無下手處 不敢輕議. 然其所言納甲之法 則今所傳京房占法 見於火珠林者 是其遺說.”

24) 서근식(2012. 4.), 앞의 논문, 208-209쪽 참조.

다. 그렇다고 해서 이황이 주희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황은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희의 견해를 보다 심화·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몽전의』를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음미해보아야 한다.

「필담논납갑」에서 이황은 기본적인 납갑의 방법부터 소개하고 있다. 「필담논납갑」 첫 부분에서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역』에 있는 납갑법이 어느 때에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일찍이 그것을 연구하여, 천지가 배태되고 육성된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있었다. 건(乾)의 갑(甲)과 임(壬)을 들이고 곤(坤)이 을(乙)과 계(癸)를 들인 것은 위와 아래에서 이를 싸고 있는 것이며, 진(震)·손(巽)·감(坎)·이(離)·간(艮)·태(兌)가 경(庚)·신(辛)·무(戊)·기(己)·병(丙)·정(丁)을 들이는 것은 자(子)의 괘(卦)가 건(乾)·곤(坤) 가운데서 생긴 것이니, 물건의 배태된 것의 껍질(胎甲)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왼쪽의 3개의 강효(剛爻)는 건(乾)의 기운이고 오른쪽의 3개의 유효(柔爻)는 곤(坤)의 기운이다.<sup>25)</sup>

위에 인용된 부분은 납갑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납갑법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쉬운 이론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그것을 연구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이황은 인용문 다음에 이어서 건괘(乾卦)와 곤괘(坤卦)가 서로 어울려 장남(長男)·중남(中男)·소남(少男)과 장녀(長女)·중녀(中女)·소녀(少女)가 각각 십이지지(十二地支)에 배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어지는 〈역수서간지납갑도(易髓書幹支納甲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8괘의 10지(支)[지(支)는 간(干)으로 써야 한다. - 원주 받아들이어 60갑자를 64괘에 배치한 것인데, 지금은 괘(卦) 가운데 48갑자만 있고 12갑자는 위치가 빠져 있으니 그 조화됨이 합치되지 않는다. 대개 성인(聖人)이 그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밝은 것으로 하여금 암암리에 들어맞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르기를 건(乾)·곤(坤) 2괘가 또 임계(壬癸)의 12지를 받아들였으니, 건괘(乾卦)의 초효(初爻)는 갑자(甲子)와 임자(壬子)와 같이 행하며 곤괘(坤卦)의 초효(初爻)는 을미(乙未)와 계미(癸未)와 같이 행해야만 비로소 완전히 갖추어진다.<sup>26)</sup>

25) 『啓蒙傳疑』 「筆談論納甲」 246쪽 下左. “易有納甲之法 未知起於何時. 予嘗考之 可以推見天地胎育之理. 乾納甲壬坤納乙癸者上下包之也. 震巽坎離艮兌納庚辛戊己丙丁者 六子生於乾坤之包中 如物之處胎甲者. 左三剛爻 乾之氣也 右三柔爻 坤之氣也.”

26) 『啓蒙傳疑』 「筆談論納甲」 〈易髓書幹支納甲圖〉 247쪽 下右. “八卦納十支. (支恐當作



위의 인용문은 『주역』의 64괘와 60갑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인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납갑법은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고 64괘와 60갑자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왜 이러한 복잡한 방법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주희도 이와 같이 복잡한 부분 때문에 한대의 이론인 납갑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에 해당되는 납갑법을 받아들였으며 「필담논납갑」 같은 글까지 쓰게 된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황은 사단칠정논쟁에서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정의·계탁·조작이 없는 리(理)에 대해 리(理)의 능동성을 주장하였다. 『계몽전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황은 주희의 견해만 따라가다 보면 『역학계몽』 이상의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몽전의』에서는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역학계몽』을 해설한 것이다. 이는 『주역석의』가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의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 석의(釋義)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받아들인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과 이황이 『계몽전의』에서 받아들인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계몽전의』에 납갑법이나 월령(月令)과 같은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황이 『역학계몽』을 보다 자세하게 해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주희의 견해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 IV. 『계몽전의』에 나타난 상수론

『계몽전의』를 보면 여러 곳에서 상(象)과 수(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황은 상수론(象數論)을 고찰하면서도 한대 상수역학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명시책 제삼(明蓍策第三)」에서 한방기와 호방평의 견해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시초(蓍草)를 세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세하다. 이 부분은

---

干) 用六十甲子布於六十四卦. 今卦中只有四十八甲子 而欠十二位 不合其造化. 蓋聖人隱下 不欲全其事 使明者暗合故也. 謂乾坤二卦 又納壬癸十二支 如乾卦初爻 甲子與壬子同行 坤卦初爻 乙未與癸未同行 方得全備也.”

시초를 세는 방법이므로 생략하고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도서 제일(本圖書 第一)」에서는 「하도」와 「낙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방기의 설이 비판한 것이 많이 있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찰하건대 한씨(韓氏, 한방기를 가리킨다. - 필자 주)의 『계몽의견』은 주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 그림에서 괘를 나눈 것도 다만 곤(坤)·간(艮)·감(坎)·손(巽)의 4괘는 주자와 같고 다른 4괘는 그와 반대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55의 수가 이미 15의 가운데에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태극(太極)이다”라고 한 말은 만일 이것을 태극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바로 태극이라고 한다면 주자가 “50의 시초(蓍草)를 가지고 태극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뜻과 맞지 않는다. 하물며 중앙의 5와 10을 비워서 태극을 상징한 것은 그림에서 법칙을 본받아서 『주역(周易)』을 받는 신묘한 곳인데, 이제 5와 10까지 합쳐서 양의(兩儀)가 나누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복희(伏羲)가 만든 『역(易)』의 근본을 잃는 것이니, 2에서 4가 나뉘고, 4에서 8이 나뉘어졌다는 많은 그릇됨을 어찌 이상하게 여길 것인가! 또 그림 가운데 성수(成數)를 안에 두고 생수(生數)를 밖으로 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sup>27)</sup>

위의 인용문에서 이황은 한방기의 『계몽의견』에 나온 내용을 상당 부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주희의 『역학계몽』의 견해와 맞지 않는 곳에 대해 한방기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하도」는 가운데 부분인 5와 그것을 둘러싼 10이 있다. 그런데 한방기는 이 부분이 바로 태극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황은 주희가 50개의 시초가 바로 태극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한방기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도」에서 가운데의 5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10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5와 10이 바로 태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5와 10은 태극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태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황은 성수를 안에 두고 생수를 밖에 둔 한방기의 견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27) 『啓蒙傳疑』 「本圖書第一」 219쪽 下左-220쪽 上右. “混按 韓氏意見多與朱子異同. 此圖分卦 惟坤艮坎巽四卦 同朱子 餘四卦 率與之相反. 非但此也 其曰 五十有五之數 已具於十五之中 是所謂太極者 若以是爲太極之象 則猶之可也 直謂之太極 則非朱子不可以五十著爲太極之意矣. 又況虛其中五與十 以象太極 最是則圖作易之妙處 今乃并五與十數以爲兩儀之分 則已失義易之本意 奚怪乎二分四 四分八之多舛哉. 又圖中內成數而外生數 亦不可曉.”

하고 있다. 1, 2, 3, 4, 5로 구성된 생수는 당연히 안에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6, 7, 8, 9, 10이라는 성수로서 완성되어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하도」의 자리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황은 한방기가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은 호방평의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주희의 견해와 맞지 않는 견해가 되었으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황은 「원괘획 제이(原卦畫第二)」〈소주분사괘부동지도(邵朱分四卦不同之圖)〉에서 소옹이 설명한 사상(四象)에서 팔괘(八卦)로 분화되어 나가는 그림과 주희가 설명한 사상에서 팔괘로 분화되어나가는 그림이 서로 다른데 이 부분을 주희가 소옹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자(邵子)의 설은 ‘양이 음과 사귀면 양의(陽儀)의 위에 있는 홀수와 짝수를 낳고, 음이 양과 사귀면 도리어 음의(陰儀)의 위에 있는 홀수와 짝수를 낳는다’는 것이다. 주자의 설은 바로 ‘양이 음과 사귀어 음상(陰上)의 홀수와 짝수를 낳고, 음과 양이 사귀어 양상(陽上)의 홀수와 짝수를 낳는다’라는 것이다.<sup>28)</sup>

소옹의 학설은 양과 음이 사귀면 양으로 된 것 위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음이 하나 나오며, 음이 양과 사귀면 음으로 된 것 위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음이 하나 나오게 된다. 이러한 소옹의 해설에 대해 주희는 양이 음과 사귀면 음으로 된 것 위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음이 하나 나오며, 음과 양이 사귀면 양으로 된 것 위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음이 하나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귀결점은 서로 같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소옹과 주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귀결점을 같다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같은 견해를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희가 소옹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원괘획 제이」의 비복(飛伏)<sup>29)</sup>을 알아내는 비결과 윤달(閏月) 구하는 법이 나오는데 이미 다른

28) 『啓蒙傳疑』 「原卦畫第二」 222쪽 下右-222쪽 下左. “邵說謂 陽交陰 而還生陽儀上之奇偶 陰交陽 而還生陰儀上之奇偶. 朱說直謂 陽交陰而生陰上之奇偶 陰交陽而生陽上之奇偶.”

29) 飛伏說은 본래 京房의 『京氏易傳』에 나오는 말로, 黃宗羲(1610-1695)는 『易學象數論』 「占課」에서 “世爻가 있는 곳에 드러난 것이 飛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伏이다(世爻所在 見者爲飛 不見者爲伏)”라고 飛伏說을 정의하고 있다.

논문<sup>30)</sup>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고변점 제사(考變占第四)』에서는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변효(變爻)에 관해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올바르게 해석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역학계몽』을 읽을 적마다 ‘4효와 5효가 변할 때에는 변하지 않는 효로써 점단(占斷)한다<sup>31)</sup>’는 설에 대하여 그것이 9를 쓰고 6을 쓰는 데 맞지 않는다고 의심했는데, 원락자의 『계몽의견』을 보고 그가 말한 것이 내가 전에 의심했던 것과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하였다”<sup>32)</sup>라고 하면서 『역학계몽』의 변효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고찰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미 다른 논문<sup>33)</sup>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음은 『역학계몽』에는 실리지 않은 척전법(擲錢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돈 세 닢을 소반에 던지는데, 만약 처음 던져서 --이 되면 이것을 단(單)이라고 하고, 두 번째 던져서 □이 되면 이것을 중(重)이라고 하고, 세 번째 던져서 --이 되면 이것은 단(單)이라 하는데, 이는 내괘(內卦)의 상(象)이니 건(乾)이 리(離)로 변하여 간(乾)을 얻게 된다. 네 번째 던져서 --이 되면 이것은 탁(拆)이라 하고, 다섯 번째 던져서 ×가 되면 이것은 교(交)라 하고, 여섯 번째 던져서 --이 되면 이것은 탁(拆)이라고 하는데, 이는 외괘(外卦)의 상(象)으로 곤(坤)이 감(坎)으로 변해간 것을 얻게 된다. 합하여 말하면 지천태(地天泰)가 수화기제(水火既濟)로 변환 것이 된다. 이는 1괘가 64괘로 변화하여 벌어져서 4,096괘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역학계몽』의 「고변점(考變占)」에서 여섯 효가 변하는 예(例)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주자가 이어서 말하기를 “이래서 1괘가 64괘로 변화할 수 있는데, 4,096괘가 그 가운데 있다”<sup>34)</sup>라고 하였다.<sup>35)</sup>

30) 서근식(2012. 4.), 앞의 논문, 209-212쪽 참조.

31) 『易學啓蒙』(『朱子全書』 1, 上海古籍出版社, 2002) 「考變占第四」 258쪽. “四爻變 則以之卦二不變爻占 仍以下爻爲主. [···] 五爻變 則以之卦不變爻占.”

32) 『啓蒙傳疑』 「考變占第四」 244쪽 上右. “混每讀啓蒙 至四爻五爻變 以不變爻占之說 竊疑其與用九用六之義不相應 及見苑洛子意見書 其所論辯 頗與混前所疑者相類 故引之于此.”

33) 서근식(2012. 4.), 앞의 논문, 212-214쪽 참조.

34) 『易學啓蒙』(『朱子全書』 1, 上海古籍出版社, 2002) 「考變占第四」 259쪽. “於是一卦可變六十四卦 而四千九十六卦在其中矣.”

35) 『啓蒙傳疑』 「考變占第四」 245쪽 上左-245쪽 下右. “以三錢擲于盤 假令初擲爲一 是謂單 第二擲爲□ 是謂重 第三擲爲一 是謂單 此爲內象 得乾之離. 第四擲爲-- 是謂拆 第五擲爲× 是謂交 第六擲爲-- 是謂拆 此爲外象 得坤之坎. 合而言之 爲地天泰之火水既濟. 此謂一卦變六十四卦 支成四千九十六卦也. 啓蒙考變占篇六爻變例下 朱子係之曰 於是一卦可變六十四卦 而四千九十六卦在其中云.”

여기에서 이황이 마지막 부분에 주희의 말이라고 하면서 “1괘가 64괘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이 부분을 <괘변도(卦變圖)>를 그려서 1괘가 64괘로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희는 한대 상수역학 이론 가운데 유일하게 괘변설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괘변도>를 그려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황은 척전법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 다음에 “이상은 『복서원구(卜筮元龜)』<sup>36)</sup>의 괘가 변하는 법에도 또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증한 것이다”<sup>37)</sup>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황은 주희가 「서의(筮儀)」에서 언급했던 점법(占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황의 견해는 괘의 변화에 대해 주희의 방법론이나 척전법과 같은 방법론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즉, 주희와는 다르게 이황은 「서의」와 같은 고급적인 방법이 아니라 척전법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인 <괘변도>를 이황이 『계몽전의』에서 무시하거나 일부러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척전법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V. 이황은 상수역학자인가, 의리역학자인가

이황의 『계몽전의』를 보면 상수역학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주희의 『역학계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역학계몽』을 퍼냄으로써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의 학설에 의혹됨이 없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황의 『계몽전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병석은 “음양의 대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음양은 비록 상대되지만 서로 이루어주고 포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상수는 모두 자연적인 상수들이다. 이 자연적인 상수 속에 바로 의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sup>38)</sup>라고 하여 『계몽전의』의 상수 속에 의리가 숨어 있다고

36) 『卜筮元龜』는 원나라 瀟吉文(?-?)이 1307년에 완성한 책으로 기본적인 占法을 알 수 있는 책이다.

37) 『啓蒙傳疑』 「考變占第四」 245쪽 下右. “右元龜變卦法亦然 故證之.”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황이 『계몽전의』를 통해 전적으로 주희의 견해를 따른 것은 아니다. 『역학계몽』에서는 괘변설 이외에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계몽전의』에서는 다양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황이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주희가 『역학계몽』(1186)을 완성한 다음에 『주역본의』(1190)를 완성한 것과 같이 이황도 『계몽전의』(1557)를 완성한 다음에 『주역석의』를 완성하게 된다.<sup>39)</sup> 그러나 『주역석의』에 나타난 관점은 정이의 의리역학적 관점이다.<sup>40)</sup> 여기서 『주역석의』의 내용을 보면 정이의 해석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역석의』에서는 「단전(象傳)」과 「상전(象傳)」 등을 괘(卦) 밑에 적고 있는데, 이는 정이가 그렇게 하였다. 반면 주희의 『주역본의』에서는 「단전」과 「상전」 등 『역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역경』에서 분리하여 따로 만들고 의리역학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주역』에서 중요한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해석도 그러하다.<sup>41)</sup> 『주역』에서는 총 8개의 괘·효사(卦·爻辭)에서 원형이정이 사용되었다. 이황은 원형이정을 건괘(乾卦) 「단전」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利亨고 貞亨니라 ○貞호미니라 ○利하야 貞亨니라 ○貞호미 利亨니라.<sup>42)</sup>

원형이정에 대해 정이는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해석하고, 주희는 ‘원형(元亨)하고 이정(利貞)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즉, 주희에 해석에 따르면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황의 해석을 보면 정이의 해석과 주희의 해석을

38) 정병석(2004. 6.), 앞의 논문, 111쪽.

39) 황병기는 「퇴계 이황의 주역학(周易學)과 『주역석의(周易釋義)』」(『國學研究』 第25輯, 한국국학진흥원, 2014. 12.)라는 논문 152쪽에서 “이황의 『사서삼경석의』는 1557년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1609년에 간행되었다”라고 하여 『周易釋義』는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啓蒙傳疑』가 완성된 1557년보다는 뒤에 저술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40) 황병기(2014. 12.), 앞의 논문, 139쪽.

41)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왕필(王弼)·정이(程頤)·주희(朱熹)·정약용(丁若鏞)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46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3.) 참조.

42) 『周易釋義』 乾卦 「象傳」 123쪽. “利亨고 貞亨니라 ○貞호미니라 ○利하야 貞亨니라 ○貞호미 利亨니라.”

모두 소개해놓고 있다.<sup>43)</sup> 이러한 해석은 『주역전의대전』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역전의대전』 「범례(凡例)」를 보면 정이와 주희의 주석을 모두 소개하고 있지만 정이의 주석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은 상경·하경 2편과 공자(孔子)의 『십익(十翼)』 10편이 각각 따로 책이 되어 있었는데, 전한(前漢)의 비직(費直, ?-?)이 처음으로 「단전」과 「상전」으로 경문을 해석하여 경문의 뒤에 붙였다. 정현(鄭玄, 127-200)과 왕필이 이를 받들고 또 괘사와 효사(爻辭)의 아래에 나누어 붙였으며, 건(乾)·곤(坤)의 「문언전(文言傳)」을 더 넣고서, 비로소 ‘단왈(彖曰)’·‘상왈(象曰)’·‘문언왈(文言曰)」을 덧붙여 경문과 구별하였으며, 「계사전(繫辭傳)」 이후는 예전과 똑같다. 역대로 이것을 따르니, 이것이 금역(今易)이니, 정자가 『정전(程傳)』을 지은 것이 이것이다. 송산(嵩山)의 조열지(晁說之, 1059-1129)가 비로소 옛 경을 고정(考訂)하여 바로잡아 8권으로 만들었는데, 동래(東萊)의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마침내 경 2권과 전 10권으로 정하여 만드니, 이것이 고역(古易)이다. 주자의 『본의(本義)』가 이것을 따랐다. 그러나 『정전』과 『본의』가 아울러 행하였는데도, 제가(諸家)가 책을 정해놓음이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전』을 원본으로 하고 『본의』를 『정전』에 준하여 비슷하게 따랐다.<sup>44)</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주역전의대전』은 정이의 『정씨역전』이 중심이 되고, 주희의 『주역본의』는 보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이황은 여기에 맞추어 『주역석의』를 만든 것이다. 『주역석의』의 체제를 보면 『정씨역전』이 중심이 되고 『주역본의』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역전의대전』의 체제와 비슷하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황은 주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황은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겉으로 보면 이황의 『계몽전의』는 상수역학

43) 황병기는 「퇴계 이황의 주역학(周易學)과 『주역석의(周易釋義)』」(『國學研究』 第25輯, 한국국학진흥원, 2014. 12.)라는 논문 154쪽에서 “정이의 『역전』에 근거하였지만 주희의 『본의』도 필요에 따라 병기하였다”라고 언급하여 程頤와 朱熹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4) 『周易傳義大全』 「凡例」. “周易 上下經二篇 孔子十翼十篇 各自爲卷 漢費直 初以彖象釋經 附於其後. 鄭玄王弼 宗之 又分附卦爻之下 增入乾坤文言 始加彖日象日文言日 以別於經而繫辭以後 自如其舊. 歷代因之 是爲今易 程子所爲作傳者 是也. 自嵩山晁說之 始考訂古經 釐爲八卷 東萊呂祖謙 乃定爲經二卷傳十卷 是爲古易 朱子本義從之. 然程傳本義 既已並行而諸家定本 又各不同. 今定從程傳元本 而本義仍類從.”

45) 『周易傳義大全』에서 朱熹의 『周易本義』가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을 淸나라 때 勅命으로 容村 李光地(1642-1718)에게 『周易本義』를 위주로 하고 『程氏易傳』을 보충으로 하는 『周易折中』을 편찬하게 하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였다.

적 입장에 있고 『주역석의』는 의리역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황은 『계몽전의』에서는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주역석의』에서는 정이의 의리역학적 입장을 따랐다. 이러한 점은 이황이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황은 도덕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주희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sup>46)</sup>

이황은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리(理)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황은 “리(理)는 지극히 존귀하고 대적할 것이 없는 까닭에 사물에 명령하지 명령받지 않는다”<sup>47)</sup>라고 하여 리(理)를 강조하였다. 이황은 리(理)의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황이 정유일(鄭惟一, 1533-1576)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글에는 이러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의)리(理)를 위주로 하면 (상)수(數)가 그 가운데에 포함되며 혹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없다고 해도 이익과 손해됨을 따지지 않으므로 일이 모두 바르게 될 것이다. (상)수(數)를 위주로 하면 그 항상됨이 본래 (의)리(理)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변화하는 것은 (의)리(理)에 합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어 비록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됨을 피하며 인륜과 의리를 없애고 해치는 일이라도 꺼리지 않고 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정자(二程子)가 그와 같은 술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이다.<sup>48)</sup>

여기서 리(理)라고 하는 부분은 의리라고 할 수 있고 수(數)라고 하는 부분은 상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황은 리(理)의 존귀성을 내세우면서 상수보다는 의리에 치중한다. 이황이 비록 『계몽전의』에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많이 끌어와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상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상수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의리적인 것이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수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의)리(理)를 위주로 하면 (상)수(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주희의

46) 이러한 점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었다. 엄연석(2001. 3.), 앞의 논문, 224쪽; 엄연석(2003. 12.), 앞의 논문, 118쪽; 엄연석(2008. 12.), 앞의 논문, 33-42쪽; 이선경(2011. 4.), 앞의 논문, 267쪽 주)11; 엄연석(2011. 8.), 앞의 논문, 220-229쪽; 엄연석(2015. 12.), 앞의 논문, 97-104쪽 참조.

47) 『退溪全書』 卷13 「書」〈答李達李天機〉 17右. “此理極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故也.”

48) 『退溪全書』 卷25 「書」〈答鄭子中別紙〉 27左. “但主於理 則包數在其中 其或有包不得處 不計利害 而事皆得正. 主於數 則其常者 固亦理在其中 其變者 則鮮合於理 而雖趨利避害 賊倫滅義之事 皆不憚爲之. 此二程所以不貴其術也.”



『역학계몽』과는 다르게 현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많이 끌어왔다. 이것은 주희의 『역학계몽』을 잘못 해석한 것도 아니고 주희의 견해를 무시해서도 아니다. 이황은 도덕형이상학의 입장에서 주희의 견해를 잘 따르기 위해 이러한 설명방식을 선택한 것이다.<sup>49)</sup> 따라서 이황의 『계몽전』은 어려운 상수는 현대 상수역학적 이론을 가져와 해결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상수 속에 담겨 있는 의리를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 복잡한 상수를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황의 이러한 측면은 사단칠정론에서 리(理)의 능동성을 주장한 것과도 관련된다.<sup>50)</sup> 이황은 사단칠정논쟁에서 기대승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기도 하였다.

대개 ‘리(理)가 발(發)함에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라고 함은 리(理)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지 리(理)가 기(氣)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사단(四端)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氣)가 발하여 리(理)가 탄다(氣發而理乘之)’라고 함은 기(氣)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 기(氣)가 리(理)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칠정(七情)이 바로 그것입니다.<sup>51)</sup>

여기서도 기대승이 기발(氣發)만 인정하려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논쟁의 끝까지 이발(理發)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한다. 주희의 입장을 따르려고 했다면 이황은 기대승의 견해를 받아들여 기발만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황은 사단이 순선(純善)함에서 발(發)해야 한다는 이발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이황의 이러한 입장은 리(理)의 입장을 존중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49) 정병석은 그의 논문에서 “『啓蒙傳疑』는 주자의 『易學啓蒙』을 연구하는 가운데 중요하거나 의심이 가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한 책이다. 이 책은 퇴계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책이기 때문에 퇴계의 『주역』에 대한 관점은 심증팔구 주자가 『역학계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퇴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계가 『주역』을 보는 입장은 분명히 주자와 달리 理를 위주로 하는 관점(主於理) 혹은 귀하게 여기는 입장(貴理)을 강조하는 의리적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정병석(2004, 6.), 앞의 논문, 103-104쪽)라고 李滉의 입장이 理를 중심으로 한 主於理의 관점 혹은 貴理의 관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정병석의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李滉이 理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과 朱熹의 義理와 象數를 통합하여보려는 입장 모두를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50) 서근식(2012, 4.), 앞의 논문, 209쪽.

51) 『退溪全書』 卷14 「書」〈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36右-36左. “滉謂當初謬說. [...] 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 四端是也. 有氣發而理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 七情是也.”

이제 이황은 상수역학자인가 의리역학자인가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황은 주희가 『역학계몽』 「서문」에서 상수와 의리에 의혹됨이 없도록 책을 서술했다고 했듯이 『계몽전의』나 『주역석의』에서 주희의 견해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단칠정논쟁에서 이황이 주희의 성리학에는 없었던 리(理)의 능동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리(理)의 능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황이 상수역학자인가 의리역학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모두 중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황은 리(理)를 중심으로 한 상수역학자이면서 의리역학자였다. 맹자(孟子, B.C. 371경-B.C. 289경)와 순자(荀子, B.C. 300경-B.C. 230경)가 선(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목표는 같았지만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로 방법론상 틀렸던 것처럼 이황도 주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세상을 위한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에서 주희는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고자 하였지만 이황은 리(理)를 중심으로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려고 하였다.

## VI. 맺음말

『계몽전의』에 나타난 이황의 견해가 현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상당 부분 끌어온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 논의과정에서 『주역석의』는 정이의 의리역학에 치우친 책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황이 『계몽전의』와 『주역석의』에서 주장한 것은 모두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주희는 『역학계몽』 「서문」에서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기 위해 상수 부분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역학계몽』을 저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황은 주희의 『역학계몽』을 해설한 『계몽전의』에서 현대 상수역학적 이론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희는 정이의 의리역학적 책인 『정씨역전』을 지양하고 있지만 이황은 정이의 의리역학적 부분을 『주역석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납감법과 같은 현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황은 사단칠정론에서와 같이

주자학파는 달리 리(理)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한대 상수역학 이론의 패변설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다양한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이황이 『계몽전의』에서 납갑법, 월령과 같은 부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계몽전의』라고 해서 주희의 견해만 따라간다면 『역학계몽』 이상의 해설이 나올 수 없다고 본 것 같다.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여러 부분에서 상수론을 고찰하고 있다. 이황은 상수론을 고찰하면서 한대 상수역학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다. 비복설과 윤달(閏月) 구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 있는데, 필자는 척전법을 소개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에서 이황은 주희가 말한 1괘가 64괘로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역학계몽』에서처럼 〈패변도〉를 소개하면 되는데 굳이 척전법으로 괘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주희가 「서의」에서 언급한 고급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척전법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소개하고 있어 주희의 견해를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주희의 견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고급적인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황은 상수역학자인가? 아니면 의리역학자인가? 『계몽전의』의 견해를 보면 상수역학자 같고 『주역석의』를 보면 의리역학자 같다. 그리고 이황이 주희의 견해를 존중한 것 같지만 『계몽전의』와 『주역석의』에서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황의 다른 편지글이나 저작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리(理)를 중심에 두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황은 겉으로는 상수역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의리역학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황이 진정으로 『계몽전의』와 『주역석의』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황은 주희의 견해를 따라간 리(理)를 중심에 둔 상수역학자이자 의리역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의 『계몽전의』는 상수역학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주희가 『역학계몽』에서 상수와 의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을 지은 것처럼 이황의 『계몽전의』도 주리(主理)적 입장에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몽전의』의 상수와 『주역석의』의 의리, 그리고 심성론(心性論)으로서의 리(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황은 다양한 관점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해본다면 주리적 입장에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통합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이황, 『계몽전의』. 『증보 퇴계전서』(전5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a.  
\_\_\_\_\_, 『주역석의』. 『증보 퇴계전서』(전5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b.  
호광 등, 『주역』. 보경문화사 영인본, 1994.

朱熹, 『易學啓蒙』. 『朱子全書』(全27冊).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2a.  
\_\_\_\_\_, 『周易本義』. 『朱子全書』(全27冊).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2b.  
\_\_\_\_\_, 『周易參同契考異』. 『朱子全書』(全27冊),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2c.  
\_\_\_\_\_, 『朱子語類』. 『朱子全書』(全27冊).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2d.  
黃宗羲, 『易學象數論』. 『黃宗羲全集』(全12冊), 中國: 浙江古籍出版社. 2005.

### 2. 논문

김영남, 「주자와 이퇴계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상수의 의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익수, 『주자와 퇴계의 역학사상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_\_\_\_\_, 「퇴계의 역학관(Ⅰ): 도·서론(圖·書論)을 중심으로」. 『퇴계학연구』 제3집, 건국대학교퇴계학연구소, 1989. 11.

\_\_\_\_\_, 「퇴계의 역학관(Ⅳ): 변점론(變占論)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2집, 한국체육대학교, 1989. 12.

\_\_\_\_\_, 「퇴계의 역학관(Ⅱ): 괘획(卦畫)의 원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14집, 동양철학연구회, 1994. 12.

\_\_\_\_\_, 「퇴계의 역학관(Ⅲ): 「명시책(明蓍策)」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1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6.

서근식, 「朱子 『易學啓蒙』의 體系的 理解」. 『東洋古典研究』 第43輯, 東洋古典學會, 2011. 6.

\_\_\_\_\_, 「退溪 李滉의 『啓蒙傳疑』에 대한 體系的 研究」. 『溫知論叢』 第31輯, 溫知學會, 2012. 4.

\_\_\_\_\_,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왕필(王弼)·정이(程頤)·주희(朱熹)·정약용(丁若鏞)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4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3.

송인창, 「퇴계 이발설의 역학적 이해」. 『주역연구』 제6집, 한국주역학회, 2001. 8.

엄연석, 「李滉의 『啓蒙傳疑』와 象數易學」. 『韓國思想과 文化』 第11輯, 修德文化社, 2001. 3.

\_\_\_\_\_, 「退溪學派의 義理易學的 목표와 象數易學」. 『奎章閣』 第26輯, 서울대학교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12.
- \_\_\_\_\_, 「퇴계 역학사상의 체계와 새로운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第3號, 嶺南退溪學研究所, 2008. 12.
- \_\_\_\_\_, 「퇴계의 역학사상에서 象數와 義理의 가역적 전환문제」.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49輯,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2011. 8.
- \_\_\_\_\_, 「퇴계 역학 문헌의 상수·의리학적 특성과 미래적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第17號, 嶺南退溪學研究所, 2015. 12.
- 이선경, 「『역학계몽』에 나타난 주자역학의 특징: 소강절 역학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2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 3.
- \_\_\_\_\_, 「퇴계학과의 『역학계몽』 이해」. 『陽明學』 第28號, 한국양명학회, 2011. 4.
- 임병학, 「退溪의 河圖洛書論과 그 性理學的 의의」.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46號,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2010. 2.
- 정병석, 「周易에 대한 退溪의 義理的 觀點」. 『退溪學報』 第115輯, 退溪學研究院, 2004. 6.
- 최정준, 「退溪의 『啓蒙傳疑』에 관한 研究: 『周易質疑』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황병기, 「퇴계 이황의 주역학(周易學)과 『주역석의(周易釋義)』」. 『國學研究』 第25輯, 한국국학진흥원, 2014. 12.

## 국 문 초 록

주희는 『역학계몽』 「서문」에서 상수와 의리를 통합하고 상수 부분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역학계몽』을 저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황은 주희의 『역학계몽』을 해설한 『계몽전의』에서 한대 상수역학적 이론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희는 정이의 의리역학적 책인 『정씨역전』을 지양하고 있지만 이황은 정이의 의리역학적 부분을 『주역석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황은 『계몽전의』에서 남갑법과 같은 한대 상수역학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계몽전의』라고 해서 주희의 견해만 따라간다면 『역학계몽』 이상의 해설이 나올 수 없다고 본 것 같다. 그렇다면 이황은 상수역학자인가? 아니면 의리역학자인가? 『계몽전의』의 견해를 보면 상수역학자 같고 『주역석의』를 보면 의리역학자 같다. 그러나 이황의 다른 편지글이나 저작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리(理)를 중심에 두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황이 진정으로 『계몽전의』와 『주역석의』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희의 도덕형이상학을 보다 강조하고 따라가는 것이었다. 이황의 사상은 『계몽전의』에서는 상수역학, 『주역석의』에서는 의리역학, 그리고 심성론(心性論)으로서의 리(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황은 다양한 관점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해본다면 리(理)를 중심으로 하여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통합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7. 12. 18.

**심사일** 2018. 1. 26.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이황(李滉, Lee Hwang), 주희(朱熹, ZhuXi), 『계몽전의』(『啓蒙傳疑』, *Qimengchuanyi*), 『주역석의』(『周易釋義』, *Zhouyisiyi*), 『역학계몽』(『易學啓蒙』, *Yixueqimeng*), 상수역학(象數易學, *Xiangshuyixue*), 의리역학(義理易學, *Yilixue*), 리(理, *Li*)

## Abstracts

### Toegye Lee Hwang(退溪 李滉)'s Philosophy in *Qimengchuanyi* (『啓蒙傳疑』)

Seo, Geun-sik

ZhuXi(朱熹) notes in the preface of *Yixueqimeng*(『易學啓蒙』) that the purpose of *Yixueqimeng* is to integrate Xiangshuyixue(象數易學) and Yiliyixue(義理易學) and to clearly understand the part of Xiangshuyixue. Lee Hwang(李滉) accepted most parts of the Xiangshuyixue theories of the Han dynasty in *Qimengchuanyi*(『啓蒙傳疑』), his book explaining ZhuXi's *Yixueqimeng*, but unlike ZhuXi, who rejected Cheng Yi(程頤)'s idea of Yiliyixue in *Chengshiyichuan*(『程氏易傳』), Lee Hwang(李滉) embraced Cheng Yi's framework of Yiliyixue in *Zhouyisiyi*(『周易釋義』).

In *Qimengchuanyi*, Lee Hwang uses the Xiangshuyixue theories of the Han dynasty, such as Nagiafa(納甲說). He seems to have thought that if he simply were to follow ZhuXi's methodologies, he would not be able to give better explanations than those illustrated in *Yixueqimeng*. Then, is Lee Hwang a scholar of Xiangshuyixue, or a scholar of Yiliyixue? On one hand, he appears to be a scholar of Xiangshuyixue given his opinions in *Qimengchuanyi*, and on the other, a scholar of Yiliyixue, based on his *Zhouyisiyi*. Yet, it needs to be highlighted that Lee Hwang always placed Li(理) in the center in his other letters or writings. What Lee Hwang truly emphasizes through *Qimengchuanyi* and *Zhouyisiyi* include ZhuXi's metaphysics of morals and its application. Therefore, Lee Hwang can be viewed as a scholar of Xiangshuyixue and Yiliyixue with Li at the center of his philosophy.